

"Stay at Home" 중에서 소명과 비전을 ...

김선경 학우 (MAM 과정 학우)

I. 고전시대 느낀점 :

COVID-19 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시기가 그래서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 배운 하이든의 삶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Esterhazy 가문에서 30 년의 삶을 성실함으로 감당했던 하이든은 이후에 런던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성실한 삶이 그의 음악 생활을 위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교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지금 우리는 'Stay at Home'이라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소명과 비전을 재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sterhazy 가문에서 30 년의 시간을 보낸 하이든에게 런던은 새롭고 낯선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음악 스타일을 고집하기 보다 열린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의 삶에서 조명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주장이 강해져 주변의 소리들을 듣기 보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한다.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적지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 했던 하이든의 모습은 배움은 끝이 없고 늘 겸손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한다.

II. 로맨틱 시대 느낀 점 :

음악사 수업 중 나의 관심사는 시대별 작곡가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다. 음악적인 재능과 작품을 통해 존경받고 있는 그들의 삶은 그동안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평범하거나 혹은 풍족한 삶을 누렸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양한 시련과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 공존했음을 볼

수 있었다. 가난이나 육신의 연약함, 혹은 내면의 상처는 각자의 삶에 무거운 시련과 고난으로 작용한다. 그 시간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느끼고 알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앞으로 나갔기에 시대의 명작들은 탄생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시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시련의 때는 말 할수 없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하고 겸손해진다.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던 라흐마니노프가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힘든 시간 동안 묵묵히 나를 지켜주고 지지해 준 사람들이 있음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니콜라이 달의 믿음과 사랑이 그를 변화 시켰던 것 처럼 나 역시 내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다.